4부 성경의 속성

# 성경론 16편 모순처럼 보이는 곳들 · 성경의 문제들에 답하기

프레임 28장 성경의 문제들(295–318쪽) · 프레임 부록 「피터 엔즈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서평(705–728쪽) · 워필드 6장 성경 영감에 관한 실제 문제 · 신앙고백서 1.8(조항 문구로만 연결) · 신앙고백서 1장 1.8

> ❓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인데 마가복음에는 하나예요. 복음서끼리 다른 건 어떻게 봐야 해요?**

### 🧭 흐름 한눈에

출발점은 정직한 인정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곳이 많고, 이 사실은 2세기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 믿음이 난제를 푸는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그다음 난제를 아홉 갈래로 나누어 갈래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계 안에서 읽을 것, '모순'의 논리적 뜻을 따질 것, 비판 뒤에 숨은 전제를 드러낼 것입니다. 복음서끼리의 차이는 이 지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워필드는 여기에 무게를 더합니다. 영감 교리를 받치는 증거는 사도들의 신뢰성을 받치는 증거 전체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 모순은 확실히 증명되기 전까지 오류가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끝으로 엔즈 서평이 균형을 잡아 줍니다. 모든 답이 지금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교리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겸손과 확신이 함께 필요합니다.

## 📜 절별 정리

### 📜 1. 난제는 새로 발견된 문제가 아니다 (프레임 28장 들어가며)

후반 철학자 셀수스가 기독교를 비판했고 오리겐이 『셀수스에 반대하여』로 답했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듣는 난제가 이미 많이 나옵니다. 비평가가 문제를 내면 학자들은 여러 답을 내놓았습니다. 다 타당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답이 타당합니다. 프레임은 “성경의 오류가 하나라도 입증된 적은 없다”는 복음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건 오류다'라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는 가능한 설명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난제도 기독교 사고의 바탕 전제를 뒤엎을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1. 난제는 2세기부터 알려진 오래된 문제다
2. 문제마다 여러 답이 나왔고 상당수가 타당하다
3. 오류 주장을 꺾는 데는 설명 하나면 된다
4. 믿음은 난제 해결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

> **(직접 인용 없음)**
> 프레임은 앞 장들에서 세운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풍부한 증거'에 기대어 이 장을 시작한다

“우리의 신앙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 프레임

## 📜 2. 신학과 윤리: 신비도, 묘사도 오류가 아니다 (프레임 28장 1-2절)

첫 갈래는 신학적 난제입니다. 교리끼리 충돌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신가? 프레임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신비를 만난다고 인정합니다. 신비란 성경이 다 말해 주지 않고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비는 오류가 아닙니다. 같은 낱말을 같은 뜻, 같은 때, 같은 측면에서 쓸 때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한 본질, 세 인격'이시라는 고백은 링컨에게 '팔이 둘, 심장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계획하셨는가” 같은 가장 깊은 질문은 남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내 자율적 판단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1. 신비는 오류가 아니다
2. 같은 뜻·같은 때·같은 측면일 때만 모순이다
3. 모순이라 말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4. 성경이 묘사한 것을 다 인정한 것은 아니다
5. 가장 깊은 '왜' 앞에서는 말씀을 택한다

> **로마서 3:23**
> 위인들도 죄인이다. 그들의 죄를 기록한 것이 그 죄를 승인한 것은 아님을 보인다
>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로마서 9:20**
>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향한 가장 깊은 반문에 성경이 주는 마지막 답
>
>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인간 이성이 완전히 이해하는 하나님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 프레임

### 📜 3. 사실: 겨자씨는 정말 가장 작은가 (프레임 28장 3절)

셋째 갈래는 성경이 어떤 사실을 잘못 말했다는 비판입니다. 대표 예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오성을 반대한 신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임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

세상에 해당하는 진술로 읽을 때 생깁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의 말투로 말합니다. 그러니 비유를 식물 분류학 교과서처럼 읽으라는 요구가 오히려 무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석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나 물 위를 걸으심을 부인하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론일 뿐입니다.

1. 겨자씨는 당시 농부가 뿌리던 씨 중 가장 작다
2. 좁은 진술을 보편 진술로 읽는 오해가 많다
3. 성경은 대개 보통 사람의 말투로 말한다
4. 해석이 빠진 '순수 사실'은 없다
5. 기적 부정은 사실이 아니라 전제다

> **마태복음 13:31-32**
> 겨자씨 비유. 본문이 말하는 경험 세계를 알면 '사실 오류'가 사라지는 대표 사례
>
>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 📜 4. 사실적 일관성: 복음서끼리 다를 때 (프레임 28장 4절 · 부록 엔즈 서평 2-1)

이 편의 질문이 바로 이 넷째 갈래입니다. 한 기록이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기록과 충돌해 보이는 경우입니다. 프레임은 먼저 역설 하나를 짚습니다. 여러 저자의 기록이 겉보기에도 완벽히 같다면 사람들은 저자들이 짜고 썼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겉보기 차이는 오히려 기록이 정직하다는 표지가 됩니다. 첫째 예는 광야 시험의 순서입니다. 프레임은 마태가 일어난 순서대로 적었고, 누가는 성전 꼭대기 시험을 절정에 두려고 순서를 바꾸었다고 봅니다. 성경은 현대 역사책처럼 늘 시간순으로 쓰지 않습니다. 둘째 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수입니다. 마태는 둘, 마가와 누가는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오직 한 명만”이라고 말하지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엔즈 서평에서 프레임은 도구 하나를 더 줍니다. 다양성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 강조의 차이, 실제 불일치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성경론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세 번째뿐입니다.

1. 겉보기 차이는 짜고 쓰지 않았다는 표지다
2. 성경은 늘 시간순으로 쓰지 않는다
3. 하나만 언급했다고 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4. 다양성은 관점·강조·불일치로 나눠 본다
5. 모순을 주장하려면 설명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마태복음 4:5-10**
>
> 성전 꼭대기 시험이 두 번째로 나온다. 프레임은 시간순 기록으로 본다
>
>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누가복음 4:5-12**
>
> 같은 시험이 세 번째로 나온다. 절정을 위한 재배열로 본다
>
> 5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

**마태복음 8:28-34**

귀신 들린 사람 둘. 더 많이 말한 기록

[28]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32]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

**마가복음 5:1-20**

하나만 언급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1]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

**누가복음 8:26-39**

마가와 같은 평행 본문. 생략은 부정이 아님을 보여 준다

[26]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29]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30]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

**출애굽기 20:5-6 · 에스겔 18:19-20**

엔즈가 든 겉보기 불일치. 프레임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대'에 관한 말로 읽어 관점 차이로 푼다

**출애굽기 20:5-6** [5]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에스겔 18:19-20** [19]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 5. '확실한 오류 하나'를 증명한다는 것 (워필드 6장, 정리본 8-9절)

워필드는 같은 문제를 증거의 무게로 다룹니다. 교회가 영감 교리를 믿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이 교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믿을 만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받치는 증거는 사도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증거 전체만큼 무겁습니다. 성육신이나 부활을 받치는 증거와 같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추정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검증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워필드는 말합니다. 억지 조화도 금물입니다. 억지로만 맞출 수 있다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금 풀지 못한다고 해서 풀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찰스 핫지의 비유를 빌립니다. 난제는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속의 모래알 같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줄어 왔습니다. 그 예로 한때 조롱받던 누가의 '총독' 칭호와 루사니아가 나중에 확인되었다는 점을 듭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소수의 난제(그는 다니엘서를 예로 듭니다)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1. 영감의 증거 무게 = 사도 신뢰성 증거 전체
2. 겉보기 모순은 증명 전엔 '난제'다
3. 다른 교리도 다 이해하기 전에 믿는다
4. 검증은 피하지 말고 더 철저히 한다
5. 억지 조화 금지. 못 풀면 그대로 둔다

> **요한복음 10:35**
>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성경에 속한 것은 무오하다는 예수님의 판단. 추정의 뿌리
>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고린도전서 2:13**
> 사도는 성령이 가르치신 말로 전한다. 사도의 가르침에 성령의 승인이 있다
>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 **사도행전 13:7**
> 구브로의 '총독' 칭호. 오류라 했으나 발견으로 입증된 사례(워필드는 장절 없이 언급)
>
>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 **누가복음 3:1**

>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만일 우리가 억지로 조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면, 조화시키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두도록 하자.” — 워필드

### 📜 6. 인용과 참조: 마태는 호세아를 잘못 읽었나 (프레임 28장 5절 · 부록 엔즈 서평 3-1)

다섯째 갈래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예는 마태복음 2:15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신 일을 호세아 11:1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그 말은 미래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출애굽을 돌아보는 말입니다. 프레임은 '이루다'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루에 주목합니다. 이 말에는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15의 “모든 의를 이루심”에는 성취될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태의 말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경험을 다시 사신다'는 뜻입니다. 엔즈는 신약 저자들이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해석 관습을 따랐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그 시대의 영향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감과 무오성은 '잘못된 인용'이라는 생각 자체를 배제한다고 답합니다. 또 구약 저자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흐름의 이른 단계에 서 있다고 봅니다. 프레임은 신약의 구약 사용을 묶는 가장 좋은 말로 '적용'을 제안합니다.

1. '성취'는 예언 적중보다 넓은 뜻이다
2.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산다
3. 출애굽기 3:6은 부활을 '함축'한다
4. 신약의 구약 인용은 넓은 의미의 '적용'이다

프레임에게는 논쟁의 중심 구절. 워필드에게는 신약이 구약 인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한 증거

**호세아 11:1**

원래는 과거 출애굽을 돌아보는 말. 신약은 '반영·채움'의 뜻으로 쓴다

>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복음 3:15**

예언 없이 쓰인 '이루다'. 성취의 넓은 뜻을 보여 준다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5:17**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심. 성취가 예언 적중만이 아님을 보인다

>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20:38**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출애굽기 3:6이 부활을 가르친다가 아니라 함축한다는 예수님의 논리

>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 📜 7. 역사와 장르: 다른 강조, 다른 글의 종류 (프레임 28장 6-7절)

여섯째 갈래는 역사적 난제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에 서 있으니 역사적 정확성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현대식 역사 서술의 엄밀함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서와 관련된 대표 예는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마태는 [illegible]

복음서는 서로를 채워 줍니다. 고고학은 존중해야 하지만 고고학도 틀릴 수 있습니다. 끝내 맞추지 못하면 정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일곱째 갈래는 장르입니다. 장르는 글의 종류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두고 그가 몇 월 며칠에 나갔느냐고 묻는다면 비유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비유나 시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비역사적 이야기는 예외이므로, 어떤 부분이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1. 강조점의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다
2. 네 복음서는 서로를 채워 준다
3. 고고학은 존중하되 최종 판정자가 아니다
4. 장르를 알아야 본문의 주장을 안다
5. 비역사성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 **요한복음 21:25**
>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 복음서마다 다른 강조가 모순이 아닌 이유
>
>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마태복음 13:3**
>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야기 형식이지만 역사를 주장하지 않는 장르의 예
>
>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 8. 과학과 저자,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 (프레임 28장 8-9절)

여덟째 갈래는 과학적 난제입니다. 대표 예는 첫째 날의 빛이 넷째 날의 해보다 먼저 나온다는 문제입니다. 프레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창조의 연대를 두고는 자기 입장(성숙한 피조물을 동반한 문자적 6일)을 밝힙니다. 그러면서도 긴 날 해석이나 문학적 틀 해석을 무책임하다고 하지는

예는 모세오경입니다. 보수 학자들도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신약 인물들은 오경을 모세의 말로 진지하게 다룹니다. 프레임은 아홉 갈래를 질문 하나로 모읍니다. “성경이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오성은 바로 그 주장이 참이라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1.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지만 그 진술은 참이다
2. 무오성은 '최대한 문자적'이 아니라 '바른 해석'이다
3. 해석과 과학의 가능성 중 하나만 맞아도 오류 아님
4. 예수님은 오경을 모세의 말로 다루셨다
5. 모든 난제의 열쇠: “성경은 무엇을 주장하나”

> **창세기 1:3**
> 첫째 날의 빛. '천체 이전의 빛' 질문의 출발점
>
>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 **창세기 1:14-19**
> 넷째 날의 해·달·별. 빛보다 나중에 오는 천체
>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 **창세기 1장 ★프레임·워필드 공통**
> 프레임에게는 해석이 갈리는 본문. 워필드에게는 관찰된 사실이 이해를 돕되 출발점은 본문이라는 예

> **신명기 34장**
> 모세의 죽음. 모세가 쓰지 않았을 부분의 대표 예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

**마태복음 19:7-8**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모두 이혼 규정을 모세의 말로 다룬다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 9. 성육신 비유의 한계, 그리고 겸손과 확신 (프레임 부록 엔즈 서평 2-2·4절)

엔즈는 성경을 말씀의 '성육신'처럼 인간적인 책으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프레임은 하나님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하신다는 '신적 적응'이 칼빈 이래 개혁신학의 오랜 강조라고 인정합니다. 성육신은 그것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데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은유이므로 거기서 함부로 결론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어이고, 성경론은 언어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 성경론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이 성경의 '말' 자체에도 반영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엔즈가 유월절 양을 '굽느냐 삶느냐'라는 율법 사이의 겉보기 모순을 내밀었을 때, 프레임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실제 난제가 무오성에 무엇을 뜻하는지를 피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결론은 겸손과 확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자주 틀릴 수

1. 신적 적응은 개혁신학의 오랜 강조다
2. '성육신'은 은유라 결론을 함부로 끌어내지 않는다
3. 성경론은 말씀의 '언어'를 다룬다
4. 프레임도 유월절 난제에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
5. 겸손과 확신은 함께 가야 한다

**출애굽기 12:8-9**

유월절 양을 불에 구우라(삶지 말라). 겉보기 모순의 한쪽

>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신명기 16:6-7**

'삶다/요리하다'로 읽히는 말이 나온다. 모순의 다른 쪽

> 6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역대하 35:13**

요시야 때 '불에 삶았다'는 기록. 두 규정을 함께 반영한 듯한 본문

>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디모데후서 3:16 ★프레임·워필드 공통**

워필드에게는 영감의 명시적 진술. 프레임은 '영감'을 제목으로 단 엔즈의 책이 이 구절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 🗣️ 다섯 목소리

| 책 |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 특별히 강조하는 것 | 비워 둔 것 |
|---|---|---|---|
| 프레임 | 복음서의 차이는 생략, 배열, 관점의 차이로 대부분 풀린다. 가능한 설명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순이 아니다. | 난제를 아홉 갈래로 나눈 지도. “성경이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이라는 질문 | 사본과 자필본 문제(이 장에서 다루지 않음). 유월절 규정 같은 일부 난제의 해결책 |
| 워필드 | 겉보기 모순은 확실히 증명되기 전까지 오류가 아니라 난제다. 영감 교리를 받치는 증거는 사도 신뢰성의 증거 전체만큼 무겁다. | 증거의 무게, 추정, 정직한 검증, 억지 조화 금지 | 개별 복음서 차이의 구체적 풀이(이 장은 원리를 다룬다) |
| 바빙크 |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프레임이 메운다(이 편 재료에 바빙크 정리본 없음) | — | 다른 편 정리본에 따르면 그는 성경의 '종의 형체'와 유기적 영감을 강조한다. 이 주제와의 연결은 확인 필요 |
| 신앙고백서 1장 | 개별 난제를 다루지 않음 — 프레임과 워필드가 메운다. 다만 틀은 준다. 논쟁에서는 원어 성경에 최종 호소하고(1.8),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1.9). | 1.7: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 자체로 똑같이 분명하지는 않다 | 구체적인 해석 방법과 사례 |
| 오웬 |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프레임과 워필드가 메운다(이 편 재료에 오웬 정리본 없음) | — | 그의 자증성 논의가 “믿음은 해결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와 닿는다는 점은 프레임 정리본의 비교일 뿐이다 |

두 모스키는 같은 결론에 서로 다른 길로 닿습니다. 프레임은 “성경이 없음을 증명할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증거 논증으로 갑니다. 워필드가 비워 둔 구체 사례는 프레임의 아홉 갈래가 채웁니다. 프레임이 다소 빠르게 넘어가는 “왜 그렇게 강하게 추정해도 되는가”는 워필드의 '사도 신뢰성 전체의 무게'가 채웁니다. 신앙고백서 1.9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칙은 평행 본문을 함께 읽어 차이를 푸는 프레임의 방식에 고백적 근거를 줍니다. 두 저자 모두 “아직 못 푼 것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겸손은 이 교리 안에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 ⚖️ 오해와 반론

## 📖 용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유기적 영감**
하나님이 저자의 성격, 문체, 지식, 자료, 시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서 영감하셨다는 개혁파의 견해.

**무오성**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틀림이 없다는 성질.

**불오성**
성경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없는,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안내자라는 성질.

**자필본**
성경 저자가 처음 쓴 원본.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사본으로 전해진다.

**난제**
성경 안에서 서로 맞지 않거나 틀려 보여 설명이 필요한 곳.

**장르**

글의 종류. 역사 기록인지, 비유인지, 시인지, 극인지를 가리킨다.

**성취(플레루)**

헬라어로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뜻. 예언 적중뿐 아니라 '반영하다, 꼭 들어맞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추정**

반대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 참으로 여기는 판단. 워필드는 “겉보기 모순은 겉보기일 뿐”이라는 추정을 말한다.

## 💬 청년의 삶으로

## ✅ 이 편의 결론

- 복음서의 차이는 대부분 생략, 배열, 관점, 강조의 차이이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 모순이라고 말하려면 같은 뜻·같은 때·같은 측면임을 보이고, 가능한 설명이 하나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영감 교리를 받치는 증거는 사도들의 신뢰성 전체만큼 무겁다. 그러니 겉보기 모순은 오류가 아니라 난제로 다룬다.
- 모든 답이 지금 손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교리를 버릴 이유는 아니다.
- 모든 난제 앞에서 던질 질문은 하나다. “성경은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는가?”

##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성경의 문제들
- 워필드 · 제6장 성경 영감에 관한 실제 문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